

# 新羅 白紙墨書 華嚴經과 則天武后字 考察

박 상 국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

I. 머리말

II. 寫經의 實態와 內容

III. 寫經造成

IV. 寫經에 나타난 則天武后字

V. 맺음말

新羅 白紙墨書 大方廣佛華嚴經은 국보 196호로 지정된 한국에서 가장 오랜 寫經이다. 이 寫經은 당의 實叉難陀가 699년에 漢譯한 周本 『華嚴經』 80卷 가운데 권 제1~10과 권 제 44~50이다.

권10과 권50의 말미에 跋文(528字)이 있는데, 이 발문에 의하면 화엄사 창건자인 황룡사의 緣起법사가 발원하여 754년에서 755년에 걸쳐 약 6개월이 걸려 완성된 사경임을 알 수 있다. 이 발문은 사경제작에 따른 儀式節次와 製作方法이 기록되어 있고, 사경 제작에 참여한 筆寫者와 부처님과 菩薩을 그린 畫師 등 寫經에 관계한 19명에 대한 居住地, 人名, 官名 등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고문서이기도 하다. 이 사경은 발견되었을 당시 권1-10은 응고되어 펼쳐볼 수가 없는 상태였고 권44~50도 보존을 염려하여 사진 촬영이 금지되었다. 최근에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이 사경이 則天武后字 연구의 보고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則天武后字는 唐 高宗의 皇后로 高宗의 死後 스스로 황제가 된 則天武后(684~704在位)가 만든 일종의 異體字이다. 則天武后字는 武后의 治世에만 쓰이고 그의 사후에 폐지되었지만, 그 후에도 취미와 호기심에 따라 사용하기도 하였던 글자이다. 이 신라 사경에 나타난 則天武后字는 初, 年, 月, 日, 星, 正, 天, 地, 授, 證, 聖, 國, 人의 字 등 13종 512자로, 則天武后 재위 당시에 제작된 敦煌 寫經과 비교해 볼 때 사용된 則天武后字의 숫자나 사용 빈도에서 敦煌 寫經보다 뛰어난 則天武后字의 寶庫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현존 最古의 화엄경 寫經으로 알려진 日本 正倉院의 華嚴經 寫經(768)에는 則天武后字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볼 때, 신라 寫經은 漢譯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화엄 사경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白紙墨書 大方廣佛華嚴經, 緣起법사, 則天武后字, 跋文, 사경제작에 따른 儀式節次와 製作方法

## I. 머리말

이 寫經은 신라 경덕왕 14년(755)에 백지에 먹으로 쓴 『大方廣佛華嚴經』으로 현존 最古의 新譯華嚴經이다. 이 사경은 唐의 實叉難陀가 699년에 漢譯한 主本 화엄경 권1~10과 권44~50, 그리고 변상도 2장이 함께 전래되어, 호암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국보 196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사경은 제 10권과 제 50권 말미에 跋文이 있다. 이 발문은 황룡사의 緣起法師가 발원하여 이룩된 사경임을 알려주었고, 사경제작에 따른 儀式節次와 製作方法 그리고 사경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人的事項이 기록되어 있다. 이 寫經의 내용은 현존 세계最古의 新譯華嚴經으로 佛敎學과 佛敎文化 研究에 귀중한 經典이며, 漢譯했던 당시에 유행했던 則天武后字가 많이 사용되어 있어 則天武后字 연구에도 획기적인 자료이다.

이 사경은 우리나라에서 그 유례가 없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발문사진을 제외하고는 보존을 위하여 그동안 일체 공개하지 않았던 대상이다.<sup>1)</sup> 그러므로 그동안 발문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있었으나 내용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신라사경 『大方廣佛華嚴經』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sup>2)</sup>를 중심으로 하여 사경조성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사경에 사용된 측천무후자를 모두 조사하여 측천무후 때 한역된 경전을 중심으로 고려대장경에 나타난 측천무후자 사용례를 비교조사 분석하여 이 사경에 나타난 측천무후자의 면모를 밝히고자 하였다.<sup>3)</sup>

- 1)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 중요전적문화재 영인사업의 일환으로 필자에게 이 조사가 맡겨져 최초로 내용을 전부 조사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 이 소중한 사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湖巖美術館에 깊은 感謝를 드린다.
- 2) 발문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다.
  - 文明大, 「新羅華嚴經寫經과 그 變相圖의 研究-寫經變相圖의 研究 (1)-」, □□韓國學報□□ 14, 1979.
  - 黃壽永, 「新羅 白紙墨書華嚴經」, □□美術資料□□ 24, 1979.
  - 黃壽永, 「新羅 景德王代의 白紙墨書 華嚴經」, □□歷史學報□□ 83, 1979.
  - 李基白, 「新羅 景德王代 □□華嚴經□□ 寫經 關與者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83, 1979 ;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96.
  - 宋芳松, 「統一新羅時代 唐樂의 受容과 그 意義」, □□韓國學報□□ 37, 1984.
  - 木村誠, 「統一新羅の骨品制-新羅華嚴經寫經跋文의 研究-」, □□人文學報□□ 185, 東京都立大學 人文學部, 1986.
  - 南豊鉉, 「新羅 華嚴經 造成記에 대한 語學的 考察」, □□東洋學□□ 21,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91.
  - 이희관, 「新羅 景德王代 華嚴經 寫經跋文의 基礎的 檢計」, □□계간 문헌과 해석□□ 통권 12호, 2000.
- 3) 이 글은 문화재청에서 2000년에 500부 한정판으로 발간한 『新羅白紙墨書 大方廣佛華嚴經』 影印本の 解題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 II. 寫經 實態 內容

### 1. 寫經의 實態

이 사경은 1978년에 삼성문화재단에서 경북 월성군 건천읍의 徐聖洙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입수한 것이라 한다. 그는 仙道를 하는 농촌 식자층으로 1961년경에 그의 스승인 尹使重(大田居住)氏에게 물려받았다고 하였다. 그의 스승에게 전래된 경위는 잘 알 수 없으나 아마도 日帝時 윤씨가 호남지방에서 입수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sup>4)</sup> 이 사경은 經文 2軸과 佛·菩薩圖 2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뒤 1978년 12월에 개최된 문화재위원회에서 국보196호로 지정되었다. 經文 2軸 가운데 한 軸은 권44~50이고 또 다른 한 軸은 응고되어 풀어 보지 못하다가 1988~1989년도에 걸쳐 日本의 技術者들에 의해서 修理되어 卷1~10까지임이 밝혀졌고, 周本 □□華嚴經□□ 80卷을 10권씩 여덟 개의 두루마리로 제본된 것 가운데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두루마리가 전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머리부분에 일부 파손이 있기는 하나 보존상태는 양호하여 지금도 만지면 탄력이 있고 뽀뽀하다. 이 종이는 도침한 것으로 얇은데도 불구하고 먹의 번짐이 없고 종이 밀도(0.64 g/cm<sup>3</sup>)가 매우 높고 중량은 32.0 g/m<sup>2</sup>이다. 이 신라사경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종이보다도 뛰어난 종이라고 종이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이 新羅 寫經紙는 매우 수준 높은 제지기술로 정성껏 빚어낸 신라시대 대표적인 종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sup>5)</sup>

이들 2축 사경의 현재 상태는 다음과 같다.

권1~10 : 上下單邊, 上下間 20.3cm, 烏絲欄, 張크기; 25.5~26.1×42.3~47cm (修理後; 26.9×42.6~47.2cm, 43張 連結, 마지막 장은 25.5×36.3cm), 전체 길이; 1982.2cm, 天地間 20.3cm, 全葉 48~56行 34字, 권3, 4, 6, 7, 10의 5言 偈頌의 경우 1行에 8句 40字가 書寫되었다. 句와 句 사이에는 1字의 字間을 두어 전체 47字로 구분하고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권2, 3, 4, 5, 6, 7, 8에 나타난 7言 偈頌의 경우 1行에 4句 28字가 書寫되었다. 句와 句 사이에는 2字의 字間을 두어 전체 34字의 구분을 계획하고 썼음을 알 수 있다. 界線의 行間은 0.8~1cm, 字徑은 평균 0.6cm로 이루어져 있다. 各 張은 0.2cm 폭으로 이

4) 黃壽永, 「新羅白紙墨書華嚴經」美術資料, 第24號, 1979년 6월. 國立中央博物館.

5) 株式會社 岡墨光堂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修理報告書』 1989년 3월  
大川昭典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料紙調査報告書』, 高知縣紙業試驗場

어 부쳤다. 表紙는 25.7×10.9 cm 크기와 24×9.3 cm 크기의 두개 片이 있다. 軸은 지름 1 cm이고, 전체길이는 29.4cm. 그리고 保存狀態는 卷首部分에 ‘大周新譯大方廣佛花嚴經序’와 ‘天冊金輪聖神皇帝製’와 序文 1行이 떨어져 나가고 없다. 卷首에 8行씩 건너뛰며 4行정도가 腐蝕으로 脫落되어 있는데, 內部로 들어감에 따라 2~3行으로 그리고 몇 字씩으로 줄어들다가 後半(26張)부터는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各 張에 張數表示는 없고 卷首題는 ‘大方廣佛花嚴經世主妙嚴品第一之二 卷二’ 등으로 되어 있다. 권10의 卷首題는 ‘大方廣佛花嚴經花藏世界品第五之三 卷十 新譯’으로 되어 있고 卷尾題는 ‘大方廣佛華嚴經 卷第十’으로 되어 있다. 각 권 모두 卷首題와 卷尾題에 ‘大方廣佛華嚴經’의 ‘華嚴’의 ‘華’ 字가 ‘花’로 되어 있는데 권 2의 卷尾題와 권 10의 卷尾題만 ‘華’로 되어 있다. 卷 10 末에는 전체 542字로 된 跋文(길이 22cm)이 26行 18~29字로 배열되어 있다. 字體는 楷書體이며, 卷軸은 木心軸(길이 29.4cm, 徑1.0cm)인데 양쪽 끝에 水晶(길이 2.8cm씩)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跋文의 序頭에 ‘天寶十三載甲午(754)八月一日初乙未載(755)二月十四日周了成...’이라 되어 있어 이 사경이 신라 경덕왕 13년에서 14년에 걸쳐 약 6개월이 소요되어 사성된 것임을 밝혀 주고 있다. 그리고 표지 두 쪽은 紫色의 종이에 銀泥로 神將과 草花紋으로 장식되었고, 그 안쪽은 獅子座와 그 臺座 위에 菩薩像이 金泥로 描寫되어 있고, 그 위쪽에 있는 建物도 역시 金泥로 묘사되어 있다.

권44~권50 : 권1~권10과 모든 조건이 대체로 동일하다. 권43의 卷尾題에서 시작하여 30張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체길이 1390.6cm이다. 권44와 권49의 5言 偈頌은 1行에 8句 40字가 書寫되어 전체 47字로 구분하고 썼음을 알 수 있고, 권45와 권50에 나타난 7言 偈頌의 경우는 1行에 4句 28字가 書寫되어 전체 34字의 구분을 계획하고 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1行 34字數의 章法은 첫 번째 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1行 34字의 形式은 魏·晉·南北朝時代부터 定型化된 것으로 알려진 1行 17字의 2배에 해당한다. 또한 1行 17字 寫成의 寫經에는 5言 偈頌의 경우 1行에 4句, 곧 20字를 쓰고 있으며 句와 句 사이에는 1字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우는 章法을 취하고 있는데 이 신라사경은 모두 이의 2배의 形式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 50卷의 卷尾題는 ‘大方廣佛花嚴經卷第五十’이라 되어 있다. 그리고 卷 第50 末尾에는 529字로 된 跋文이 14行 37~50字 씩 배열되어 있다.

## 2. 寫經의 內容

이 백지 목서 대방광불화엄경은 당나라 實叉難陀가 695~699년에 80권으로 번역한 『80화엄경』이다. 80화엄은 60화엄에 비해서 문장이 아름답고 그 내용 또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이 80화엄경은 7處 9會 39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즉 菩提場, 普光明殿, 忉利天宮, 摩夜天宮, 兜率天宮, 他化自在天宮, 給孤獨園 등 7곳에서 9회에 걸쳐 내용을 39品으로 나누는 것이다.

화엄경은 범어로 Buddha-avatamsaka-nāma-mahavaipuly-sūtra인데 줄여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진리를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화엄경은 實叉難陀가 주관하여 東都 佛授記寺에서 번역하였는데 신라의 圓測(613~696)이 譯場에 參席하였다 한다.<sup>6)</sup>

이 경전은 부처님의 正覺 내용을 표현한 경전인데, 經名인 ‘大方廣佛華嚴經’의 ‘大’란 드 넓어 그 끝이 없음을 뜻하고, ‘方’이란 스스로 정법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며, ‘廣’은 곧 본체를 드러내 두루함을 일컬음이고, ‘佛’은 玄妙한 華嚴法界의 이치를 깨달은 이를 가리킴이며, ‘華’란 공덕을 닦는 만행에 비유함이고, ‘嚴’은 범으로 장엄하여 인격을 완성함을 뜻하며, ‘經’이란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이니, 그윽하고 응결된 오묘한 뜻을 꿰었으며, 한량없는 바다 같은 대중을 포섭하여 三世에 영원한 법규를 지음이라고 풀이하고 있다.<sup>7)</sup>

이 大方廣佛華嚴經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대부분의 경전이 待機說法이라 하여 중생의 根機에 맞춰 說法했는데 비해, 이 경전은 成道 後 14일 때, 衆生들의 根機에 관계없이 깨달은 진리를 그대로 海印 三昧 속에서 說했다고 하는 점이다. 둘째 설법장소를 지상→천상→지상으로 옮기며 부처님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보살들이 돌아가면서 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각 품을 成立史的인 면에서 보면 시간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4성제나 12연기설과 같은 초기불교의 교설이 매우 자세히 설해지고 있는데 비해서 중기 대승 불교사상인 如來藏 思想도 說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 경의 主題(中心思想)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 경에는 단일의 주제가 설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내용이 설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화엄경을 여러 사상의 보고(寶庫)라고도 한다.

華嚴經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확실치 않다. 화엄경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高僧傳에

6) 李智冠, 「韓國佛敎에 있어 華嚴經의 位置」, 『佛敎學報 第20輯』, 1983, p.16.

7) 李智冠, 「譯註 華嚴經 懸談(二)-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 『伽山學報 第4호』, 伽山佛敎文化研究院 1995, p.375.

실려있는 法度傳에 僧朗에 관한 기록이 있다.<sup>8)</sup> 즉, 법도에게 승랑이란 제자가 있었는데, 先師의 뒤를 이어 山寺를 맡았다. 본래 요동 사람으로 모든 經·律을 능히 講說하였으되 華嚴과 三論에는 특히 능통하였다고 한다. 승랑은 중국 東晉(381~419) 말기에 활약한 고구려 승으로 중국의 道安, 鳩摩羅什, 慧遠 등과 함께 당시 四大 偉僧으로 꼽혔던 인물이다.<sup>9)</sup> 국내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慈藏이 당나라에서 文殊眞身을 친견하고 643년에 귀국한 후 신라의 五大山에 文殊道場을 設定하였고, 元寧寺 落成會를 베풀 때 화엄경을 講說하여 五十二善知識의 感應을 보았다는 것이다.<sup>10)</sup> 그 후 元曉(617~686), 義湘(625~702), 表訓, 緣起 등이 화엄경에 대한 研究를 하였는데, 원효는 華嚴綱目, 華嚴經疏, 華嚴經宗要 등, 의상은 一乘法界圖, 入法界品鈔記, 華嚴十門看法觀, 白花道場發願文, 一乘發願文 그리고 表訓은 華嚴經文義要決問答, 明晶은 海印三昧論, 緣起는 華嚴經要決, 華嚴經眞流還遠樂圖, 華嚴經開宗決疑 등의 著述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당시의 高僧들에게 있어서는 華嚴經 研究가 상식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신라시대 華嚴思想하면 義湘을 생각하게 되고, 의상을 생각하면 洛山寺와 浮石寺 등 華嚴十刹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洛山寺라고 하면 觀音과 普陀洛伽山을 생각하게 되는데, 화엄경에서 觀音의 出處를 普陀洛伽山으로 설한 것은 新譯인 80화엄이다. 그런데 80화엄이 번역된 것이 699년이고 의상이 세상을 떠난 것이 702년이였다. 그러므로 낙산사가 80화엄에 의해서 창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어찌되었던 의상은 중국 華嚴敎學의 正統을 이어받고 신라에 들어와서 낙산사, 부석사 등 華嚴道場을 짓고 후학들을 육성하여 신라 화엄의 전통을 수립하였던 고승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도 均如, 義天 등의 고승이 나와서 화엄학의 연구는 매우 활발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禪敎 兩宗이 되면서 신라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화엄학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華嚴經은 여전히 禪敎合一思想에서 禪敎를 막론하고 불교경전 가운데 수위를 차지하면서 현재까지도 韓國의 모든 佛敎講院에서 강의하고 있다.

華嚴經에 담겨져 있는 華嚴思想은 의상의 『一乘法界圖』에서 요약되어 있듯이, 一中一切多中一, 一卽一切多卽一이라는 화엄경의 세계관인 一心法界로 요약된다. 우리 모두가 화엄의 一心法界思想에 의해서 圓融無碍하고 淸淨無垢한 一心의 상태가 되면 眞實된 智慧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모든 것에 圓滿하여 걸림이 없게 된다는 내용이다. 眞實된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객관적인 事實의 세계를 볼 수 있고 苦痛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眞理의 세계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華嚴의 圓融無碍한 思想은 통일신라의 위업을 달성시키는 原動力이

8) 慧皎(梁)撰, 「義解5 法度傳」, 『高僧傳 卷8』 p.380.

9) 蔡印幻, 「義湘 華嚴敎學의 特性」, 『韓國華嚴思想研究』, 東國大學校 出版部, 1982, p.81.

10) 三國遺事 卷4. 義解 5, 慈藏定律 條

되었고 이후 각 시대를 내려오면서 오랫동안 한국불교 最高의 思想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류의 마지막 救援 思想이라고도 한다.

이 화엄사경 첫 번째 軸인 권 제1~10까지는 제1회 菩提場會에서 설법한 내용으로 총론 격인데, 제1 世主妙嚴品(권1~5)과 제2 如來現相品(권6), 제3 普賢三昧品(권7), 제4 世界成就品(권7), 제5 華藏世界品(권8~10)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軸인 권 제44~50은 제 7會 普光明殿의 두 번째 모임에서 설한 내용으로 제28 十通品(권44), 제29 十忍品(권44), 제30 阿僧祇品(권45), 제31 如來壽量品(권45), 제32 諸菩薩住處品(권45), 제33 佛不思議法品(권46~47), 제34 如來十身相海品(권48), 제35 如來隨好光明功德品(권48), 제36 普賢行品(권49), 제37 如來出現品①(권50)이 수록되어 있다.

### III 寫經造成

이 사경의 跋文에는 寫經製作에 따른 儀式節次와 方法이 기록되어 있고, 사경에 참여한 筆寫者, 經心匠, 佛·菩薩을 그린 畫師, 經의 題目을 쓴 經題筆寫 등 寫經에 관계한 19명에 대한 居住地, 人名, 官名 등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 신라시대의 불교와 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귀중한 史料가 된다.

이 발문은 권10과 권50의 권말에 있는데, 처음에는 권50의 발문만 공개되었다.<sup>11)</sup> 따라서 당시에는 첫 번째 두루마리에 발문이 있는지조차 분명히 알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 후 첫 번째 두루마리에 대한 보존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권10의 말미에도 발문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sup>12)</sup>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권10의 발문과 이미 공개된 권50의 발문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권10의 발문은 542字이고 권50의 것은 529字<sup>13)</sup>이다.

권10의 발문을 소개하면 보면 다음과 같다.

<卷10의 跋文>

(1) 天寶十三載甲午八月一日初 乙未載二月十四日一部周了成內之 成內

11) 黃壽永, 「新羅 白紙墨書華嚴經」, pp.1~2, 李基白, 「新羅 景德王代 □□華嚴經□□ 寫經 關與者에 대한 考察」, p.360의 註1) 참조.

12) 이 첫 번째 두루마리는 93년 책의 해 기념 '한국의 책 문화 특별전'(11.9~12.19)에 처음으로 1주일 간 공개되었고, 이어서 湖巖美術館이 개최한 「高麗·영원한 美-高麗佛書特別展-」(1993년 12월 11일~1994년 2월 13일, 호암갤러리)에서 전시된 바 있다.

13) 그동안 모두 528자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12행의 마지막 글자인 大舍가 한 개의 글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한 개의 글자로 잘못 계산한 탓이다.



- (2) 願旨者 皇龍寺緣起法師爲內賜 第一恩賜父願爲、內弥 第二法界
- (3) 一切衆生皆成佛欲爲賜以成賜乎 經之成內法者 楮根中香
- (4) 水散尔 生長令內弥 然後中若楮 皮脫那 脫皮練那 紙作
- (5) 伯士那 經寫筆師那 經心匠那 佛菩薩像筆師 走使人
- (6) 那 菩薩戒授令弥 齊食弥 右諸人等 若大小便爲哉 若
- (7) 臥宿哉 若食喫哉爲者 香水用尔沐浴令只但作、處
- (8) 中進在之 經寫時中 並淳淨爲內新淨衣 禪 水衣 臂衣
- (9) 冠 天冠等莊嚴令只者 二青衣童子灌頂針捧弥 又青
- (10) 衣童子著 四伎樂人等並伎樂爲弥 又一人香水行道
- (11) 中散弥 又一人花捧行道中散弥 又一法師香爐捧引
- (12) 弥 又一法師梵唄唱引弥 諸筆師等 各香花捧尔 右
- (13) 念行道爲 作處中至者 三歸依尔 三反頂礼爲內佛菩
- (14) 薩華嚴經等供養爲內以後中 坐中昇 經寫在如 經心
- (15) 作弥 佛菩薩像作時中 青衣童子 伎樂人等除余淳淨
- (16) 法者 上同之 經心內中 一收舍利尔入內如 我今誓願
- (17) 盡未來 所成經典不爛壞 假使三灾破大千 此
- (18) 經与空不散破 若有衆生於此經 見佛聞經敬舍利
- (19) 發菩提心不退轉 脩普賢因速成佛 成檀越新羅國
- (20) 京師所白 紙作人 仇叱珍兮縣 黃珍知奈麻 經筆師
- (21) 武珍伊州 阿干奈麻 異純大舍 今毛大舍 義七韓舍
- (22) 孝赤沙弥 南原京 文莫沙弥 卽曉韓舍 高沙夫里
- (23) 郡 陽純奈麻 仁年韓舍 屎烏韓舍 仁節韓舍 經心
- (24) 匠 大京 能吉奈麻 丐古奈麻 佛菩薩像筆師 同京
- (25) 義本韓奈麻 丁得奈麻 光得舍知 豆烏舍 經題
- (26) 筆師 同京 同知韓舍 六頭品 父吉得阿浪

\* ( )안의 숫자는 行次 表示다.

권10의 발문을 중심으로 사경 조성과 그 방법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寫經의 발문에서 사경제작 절차와 의식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것은 이 □□華嚴經□□ 寫經이 유일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이 기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寫經의 分業 그리고 守則 및 儀式節次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끝으로 七言八句의 發願文과 함께 關係人名을 나열하고 있다.

이 발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그 뜻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sup>14)</sup> 이제 그러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寫經의 제작연대는 발문의 시작 부분에 “天寶十三載甲午八月一日初 乙未載二月十四日一部周了成內之”라고 되어 있다. 즉 신라 景德王 13년(754) 8월 1일에 寫經을 시작하여 이듬

14) 文明大 앞글 pp.32~34, 黃壽永 앞글 pp.4~7, 木村誠 앞글 pp.79~83 참조.

해인 755년 2월 14일에 완성한 것이다.

이 사경은 皇龍寺의 緣起法師가 아버지를 위해 발원한 사경인데, ‘法界의 一切衆生이 모두 成佛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발원하고 있다. 緣起法師는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華嚴寺의 창건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sup>15)</sup> 그런데 緣起法師가 하필 자신의 부모 가운데 아버지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기원한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이 寫經이 부처의 涅槃日에 완성되었던 점은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이어서 寫經의 제작절차와 의식을 언급하고 있다. 사경제작을 위해서는 먼저 사경용 종이 제작 과정과 방법, 그리고 필사자 불보살상 필사자 등 참여자들의 分業과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수칙 및 사경소입장 의식, 사경할 때 의식, 경심을 만들고 불보살상을 그릴 때 의식 등이 기록되어 있다.

經을 만드는 法은, 닳나무 뿌리에 香水를 뿌려 자라게 하고, 그러한 然後에 닳나무 껍질을 벗기고 벗겨낸 껍질을 鍊磨한다. 종이 만드는 사람이나 經寫筆師나 佛菩薩像筆師나 走使人이나 (모두) 菩薩戒를 받게 하고 齊食하며, 이 사람들이 만약 大小便을 보거나 누워 자거나 식사를 했을 경우에는 香水로 목욕을 하게 한 후에 寫經하는 곳에 들어가게 한다. 經을 쓸 때에는 모두 淸淨하게 한 깨끗한 淨衣·禪·水衣·臂衣·冠·天冠 등으로 莊嚴하게 한다. 두 靑衣童子가 灌頂針을 받들고, 또 靑衣童子가 나타나면 네 명의 伎樂人이 일제히 伎樂을 하고, 또 한 사람은 香水를 가는 길에 뿌리고, 또 한 사람은 꽃을 받들어 가는 길에 뿌리고, 또 한 명의 法師는 香爐를 받들어 引導하고, 또 한 명의 法師는 梵唄를 부르며 引導하고, 여러 筆師들은 각각 향과 꽃을 받들고, 念佛하면서 길을 가 寫經하는 곳에 이르면, 三寶에 歸依하고 세 번의 큰절을 하고 佛菩薩에게 □□華嚴經□□ 등을 供養한 후에 자리에 올라 經을 筆寫한다. 經心을 만들고 佛菩薩像을 그릴 때 靑衣童子와 伎樂人을 제외한 다른 淸淨한 法은 위와 같다. 經心안에 舍利를 한 알 넣는다.

이어서 發願文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이 사경을 發願한 緣起法師의 간절한 염원이 드러나 있다. 즉 그는 이 발원문의 전반부에서는 이 寫經이 영원토록 파손되지 말 것을 祈願하고, 후반부에서는 衆生이 이 經에 의지하여 열심히 精進하면 成佛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6)</sup>

15) 李基白, 1978년 12월 19일 「景德王代 新羅 寫經의 跋文」, □□韓國古代史論□□ 增補版, 一潮閣, 1995 p.163; 文明大, 앞글 pp.54 ~ 55.

16) 朴相國, □□사경□□, 대원사, 1990, p.8 참조.

내 지금 미래세가 다하도록 일념으로 誓願하노니,  
 필사한 이 經典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三災로 大千世界가 부서진다 하더라도  
 이 寫經은 허공처럼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衆生들이 이 經에 의지하여  
 부처님 뵈옵고 法門 들으며 舍利를 받들고  
 菩提心を 發하여 勇猛 정진하고  
 普賢菩薩의 行願을 닦으면 곧 成佛하리라.

施主者는 成槽越新羅國京師所白이라 되어 있어 「施主者는 新羅國 王京의 所白임을 알 수 있다. 所白은 아무런 官位도 가지고 있지 못한 平人 신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권50의 발문에는 시주자가 나오지 않는다. 나머지 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시주자 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것이다. 그리고 施主者가 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지만, 80권 전체 시주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권1에서 권10까지 필사할 때의 시주자 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寫經에 관여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경제작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기술자들로서 당시로서는 일반적으로 工匠으로 간주되었을 성질의 사람들이다.<sup>17)</sup> 사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에 있어서 그 내용은 擔當業務居住地·人名·官等の 순서로 紙作人, 經筆師, 經心匠, 佛菩薩筆師, 經題筆師 등 5種 19人을 열거했다. 이것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8)</sup> 이 가운데 經題筆師인 同智大舍는 이 사경의 指揮者格으로 추정되고 그의 經心匠과 佛菩薩像筆師 및 經題筆師 등 7人은 大京(慶州) 出身인 사실이 특히 주목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이 사경의 寫成에 있어서 中央과 地方人의 合作을 示唆하는 것으로서 또한 그 造成地域이 湖南地方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담당업무별로 사경에 관여한 자들이 기록되어 있다. 紙作人은 寫經에 사용되는 종이를 만든 사람이다. 사경에 쓰는 종이는 얇은 楮紙를 여러 겹 붙여서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종류의 염색을 하기도 한다. 經筆師는 말 그대로 經文을 쓰는 사람이다. 經心匠은 寫經 두루마리의 맨 끝에 붙이는 軸을 만드는 사람이며, 佛菩薩像筆師는 變相圖처럼 經文의 앞에 붙이는 佛菩薩像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며, 經題筆師는 사경의 맨 마지막에

17) 李基白, 앞글 pp.363~364.

18) 이희관, 앞글 p.238.

사경의 표지에 經의 제목을 써넣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紙作人에서 經題筆師에 이르기까지  
寫經 關與者의 內譯

擔當業務	居住地	人名	官位
紙作人	仇叱珍兮縣	黃 珍 知	奈 麻
經筆師	武珍伊州	阿 干	奈 麻
		異 純	大 舍
		今 毛	大 舍
		義 七	韓 舍
		孝 赤	( 沙 彌 )
	南原京	文 莫	( 沙 彌 )
		卽 曉	韓 舍
	高沙夫里郡	陽 純	奈 麻
		仁 年	韓 舍
		屎 烏	韓 舍
仁 節		韓 舍	
經心匠	大京	能 吉	奈 麻
		弓 古	奈 麻
佛菩薩像筆師	同京	義 本	韓 奈 麻
		丁 得	奈 麻
		光 得	舍 知
		豆 烏	舍 ( 知 )
經題筆師	同京	同 智	韓 舍

기록한 순서는 업무담당자의 지위에 따른 것이 아니고 寫經하는 절차의 순서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sup>19)</sup>

이들은 다시 거주지별로 기록되어 있는데, 經心匠들은 두 사람 모두 大京人으로 되어 있다. 大京은 檀越인 所白의 거주지로 되어 있는 京師와 마찬가지로 王京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다만 왜 동일한 발문에서 王京을 京師와 大京으로 달리 썼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佛菩薩像筆師와 經題筆師의 거주지로 되어 있는 同京도 王京을 가리킨다는 데에는 의심이 없다.<sup>20)</sup> 이 사경에 관여한 經心匠과 佛菩薩像筆師와 經題筆師는 모두 王京人이었다.

이에 반하여 紙作人인 黃珍知는 지방인 仇叱珍兮縣 출신이었다. 仇叱珍兮縣은 오늘날의

19) 李基白, 앞글 p.363.  
20) 李基白, 앞글 p.365.

全羅南道 長城郡 珍原面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經筆師들의 거주지인 武珍伊州와 南原京과 高沙夫里郡은 각각 현재의 전라남도 光州市와 전라북도 南原市와 定州市 古阜面이다.21) 당시 武珍伊州와 仇叱珍兮縣은 武珍州 관할의 행정구역이었고, 南原京과 高沙夫里郡은 完山州 관할 아래에 있었다. 즉 이들은 모두 전라도 지방 출신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經筆師 11명이 모두 지방인이었다는 사실이 꽤 흥미롭다. 經筆師는 직접 經文을 쓰는 일을 맡았으므로 사실상 寫經에 있어서 핵심적인 존재들이었다. 이러한 일을 한 經筆師들은 寫經을 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佛經에 대한 이해와 같은 학문적 지식도 갖추고 있던 사람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화엄경의 서체를 筆寫 順序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권1~10의 經題는 모두 대부분 변화가 없이 一定하여 설명이나 획의 분석이 없어도 한눈에 同一人의 筆跡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권44~50 역시 동일인의 필적이다. 跋文의 글씨는 권10의 跋文 글씨와 권50의 跋文 글씨가 同一人의 것임이 바로 확인된다. 그에 비해 두 經文의 글씨와는 다른 書風의 소유자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따라서 권10과 권50의 跋文을 쓴 書者는 同一人이고 권1~10의 經文을 쓴 筆寫者나 권44~50의 經文을 쓴 筆寫者는 다르다. 다시 말하면 각 축은 1인의 經筆師가 經題와 經文을 모두 썼으나 跋文은 모두 다른 經筆師 1인이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1축의 經筆師 1인, 2축의 經筆師 1인, 1축과 2축의 跋文을 쓴 經筆師 1인, 즉 3인의 經筆師에 의하여 寫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문에 缺字를 追記한 部分이 있는데 經文의 書體와 같은 것과 다른 경우가 있다. 같은 것은 經筆師가 寫經時 발견하고 바로 써넣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반해 다른 것은 經筆師의 未發見으로 인해 校閱人의 손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校閱는 누가 담당했을 까하는 것이다.

跋文에 의하면 經題筆師 1인에 經筆師 11인, 습 12인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일반인과는 달리 沙彌 2인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축인 권1부터 권10까지가 1인의 寫成이고 2축인 권43부터 권50까지가 다른 1인의 寫成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卷10 單位로 經筆師들이 각각 分擔하여 寫成하였음을 알 수 있다. 新譯 華嚴經이 80卷本이기 때문에 卷10 單位로 寫成할 때 8인의 經筆師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各軸에 붙어 있는 발문을 1인이 專擔하여 필사하였고, 經題筆師는 총 감독과 표지의 經題目을 筆寫하였을 것이므로, 沙彌 2인이 남게 되는데 바로 이들이 경문 내용을 校閱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六頭品 父吉得阿滄」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六頭品 父吉得阿滄’을 經題筆師 同知韓舍의 아버지라고 보고 있다.22) 經題筆師는 경전의 제목을

21) 文明大, 앞글 pp.33~34; 李基白, 앞글 p.364 참조.

써넣는 사람인데, 經題筆師가 寫經의 일을 지휘하는 우두머리였다고 한다.<sup>22)</sup> 그리고 經題筆師인 同知韓舍가 六頭品이라는 것인지 父 吉得阿湊이 六頭品이라는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경을 완료하고 난 뒤 사경공덕을 회향하는 대상으로서의 ‘父 吉得阿湊’이라고 特記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발문에서 사경공덕을 회향하는 대상으로 아버지 이름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緣起法師의 아버지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경은 緣起法師가 아버지를 위해 발원하여 寫成한 것이기 때문이다.<sup>24)</sup>

#### IV. 寫經

#### 則天武后字

則天武后字는 則天武后(625~705)가 만든 글자를 일컫는다. 則天武后는 唐 高宗의 皇后로서 683년 高宗이 죽자 獨裁權力을 휘둘렀으며, 690년에는 國號를 周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 曆法, 官名을 새로 바꾸고 새로 글자를 제정하였다. 이때 則天武后가 새로 만든 글자가 則天武后字인데 정확히 몇 자인지 확실하지 않다. 新唐書에는 12字를 고쳤다고 하고, 資治通鑑의 胡三省註에는 14字를 고쳤다고 하고, 通志에는 16字, 續通志에는 17字를 고쳤다고 하고, 集韻에는 18字, 宣和書譜에는 19字를 고쳤다는 기록들이 있다.<sup>25)</sup> 그러나 則天武后字에 대해서는 명확한 관련 자료가 희귀하기 때문에 관련 문헌과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본의 常盤大定이 쓴 ‘武周新字의 연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寫本인 王勃詩序, 文館詞林, 寶雨經 등 3種을 근거로 하여 金石萃編, 金石續編 등 石刻史料와 상호 참조하여 則天武后字를 照, 載, 初, 授, 證, 聖, 年, 月, 日, 星, 正, 天, 地, 人, 君, 臣, 國 등 17字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sup>26)</sup> 이어서 王三慶도 敦煌寫經을 조사한 그의 논문에서 常盤大定の 연구성과를 수용하고 制字 年度에 관해서 載初元年(690)에 照, 載, 初, 年, 月, 日, 星, 正, 天, 地, 君, 臣, 國의 12字를 만들었고, 이외에 天授(690~691년) 원년 10월 이후에 ‘授’자를, 證聖(695) 원년에 ‘證, 聖’ 2字를 더 만들었고 ‘國, 人’ 字는 天冊萬歲2년(696)과 聖曆年間(698)에 뒤따라 나왔다고 하였다.<sup>27)</sup> 이것이 지금까지 나온 則天武后字에 관한 정설로 생각된다.

22) 文明大 앞글 p.60, 李基白 앞글 p.368, 木村誠 앞글 pp.87~88 참조.

23) 文明大, 앞글 pp.60~61 참조.

黃壽永, 앞글 p.720

24) 이희관, 앞글 참조, 그리고 김경호씨의 도움으로 筆寫者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黃壽永, 前揭書, p.720

25) 王三慶, 「敦煌寫卷中武后新字之調查研究」, 『漢學研究』, 第4卷 第2期, 民國75年(1986), p.437.

26) 常盤大定, 「武周新字의 一研究」, 『東方學報』 第6冊, 東京出版, 1936.

27) 王三慶 앞글, p.447~448.

則天武后字는 則天武后가 만든 일종의 異體字이다. 이러한 異體字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였더라면 기존의 글자체로 정착되었을 것인데 일정한 기간 동안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체자 가운데서도 특수하게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異體字는 시대에 따라 유행처럼 사용하다가 사라진 것도 있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字도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字體(異體字)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성행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국립국어연구원이 주관하여 실시한 ‘한자의 자형조사’가 우리나라에서의 본격적인 이체자 조사의 시작이었다.<sup>28)</sup> 이러한 異體字 가운데서도 則天武后字는 최근에 와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는 則天武后字에 관한 자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則天武后字가 출현하였기 때문에 則天武后字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일본이나 중국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의하여 겨우 이해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 신라 백지 목서 大方廣佛華嚴經은 多量の 則天武后字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則天武后字 연구에 새로운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80卷本 華嚴經의 漢譯이 바로 則天武后가 집권할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역할 때 측천무후자가 사용되었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동안 新譯 華嚴經으로 현존 最古의 寫經으로 알려져 있던 日本의 正倉院에 있는 神護景雲 2년(768)의 華嚴經 寫經에는 則天武后字가 자취를 감추고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 필사를 하면서 則天武后字를 바로잡는다는 것이 기계적으로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데 則天武后字가 한 字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則天武后字가 듬뿍 담겨져 있는 新羅寫經의 位相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新羅寫經은 正倉院의 華嚴寫經보다 연대만 14년 앞선 것이 아니라 漢譯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사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라사경은 則天武后字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無, 華, 所, 徧, 土, 爾, 彌, 處, 禮 등에 異體字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異體字는 754년 統一新羅時代 漢字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그리고 이러한 글자들은 그 사이에 없어진 字도 있고, 오늘날까지 자주 사용하는 字도 있는데, 언제 生成된 것인지 그 下限年代를 명확히 해 주고 있다.

이 신라사경에 나타난 則天武后字는 初, 年, 月, 日, 星, 正, 天, 地, 授, 證, 聖, 國, 人의 字 등 13종 512자가 사용되어 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使用頻度는 글자마다 모두 틀린다. 권1~10의 축은 則天武后字가 月, 日, 星, 正, 天, 地, 證, 國, 人 등 9종의 글자에 나타나 있는데 則天武后의 이름인 ‘照’字는 67회에 걸쳐 나타나 있으나 則天武后字는 한 자도 없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글자는 ‘天’자로 157회에 걸쳐 사용되었는데 則

28)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윤영선, 이준석 연구원이 담당하여 편낸 『한국의 자형 조사(1), (2)』(1996, 1997)가 나왔고, 최근에 李圭甲教授가 編纂한 『高麗大藏經異體字典』이 高麗大藏經研究所에서 나와 異體字 研究에 활기를 띄고 있다.

天武后字로 바뀌진 것은 26자에 지나지 않아 사용비율이 16%에 그친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글자는 ‘國’자로 102회에 걸쳐 사용되었는데 101자가 則天武后字로 99%의 사용비율을 갖고 있고, ‘地’자는 68회에 걸쳐 사용되었는데 57자가 則天武后字로 사용율이 83%이고, ‘照’자는 67회에 걸쳐 사용되었는데 則天武后字는 한 자도 없다. 그리고 ‘日’자는 37회에 걸쳐 나타나는데 모두 則天武后字로 사용율이 100%이고, ‘月’자는 27회에 걸쳐 사용되었는데 則天武后字가 24자로 사용율이 88%이고, ‘人’자가 14회에 걸쳐 사용되었는데 則天武后字가 12자로 사용율이 85%이고, ‘正’자는 7회 모두 則天武后字로 사용율 100%이고, ‘證’자는 5회 모두 則天武后字로 사용율이 100%이고 ‘星’자는 1회 사용하여 則天武后字의 사용율 100%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권44~50의 축은 則天武后字가 初, 年, 月, 日, 星, 正, 天, 地, 授, 證, 聖, 國, 人 등 13종의 글자가 등장하는데, 則天武后의 이름자인 ‘照’字는 58회에 걸쳐 나타나 있으나 則天武后字는 한 자도 없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글자는 ‘人’字로 157회에 걸쳐 사용되었는데, 則天武后字로 바뀌진 것은 33자에 지나지 않아 사용비율이 21%에 그친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글자는 ‘天’字로 93회에 걸쳐 사용되었는데 47자가 則天武后字로 사용율이 50%이고, ‘國’자는 75회에 걸쳐 사용되었는데 61자가 則天武后字로 사용율이 81%이고, ‘照’자는 58회에 걸쳐 사용되었는데 則天武后字는 한 자도 없다. 이어서 ‘日’자는 31회에 걸쳐 사용되었는데 則天武后字가 30자로 사용율이 97%이다. 나머지 ‘月’자는 31회, ‘證’자는 11회, ‘正’자는 10회, ‘授’자는 7회, ‘年’자는 4회, ‘聖’자는 2회, ‘初’자와 ‘星’자는 1회씩 사용하였는데 모두 則天武后字로 사용율이 100%이다.

그러면 이 則天武后字는 언제까지 쓰여 졌을까. 이를 위해서 중국의 王三慶이 敦煌寫經 가운데 則天武后字를 조사한 것에서 보면, ‘載’자는 使用律이 60%, 初자는 40%, 授자는 63%, 證자는 41%, 聖자는 35%, 年자는 73%, 月자는 61%, 日자는 52%, 星자는 50%, 正자는 74%, 天자는 37%, 地자는 42%, 人자는 38%, 君자는 17%, 國자는 59%, 璽자는 0%로 敦煌寫經에 보이는 武后新字가 출현한 평균치는 약 50%이었다.<sup>29)</sup> 이 통계 수치로 武后新字의 寫本에 대한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 즉 武后時代의 것은 반에 미치지 못한 듯한데 이러한 것은 武后制字는 엄한 명령으로 遵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載初로 開元한 赦令에 “짐은 마땅히 璽로 이름을 삼고 ....특별히 12字를 創製하여 諸侯에 勅令하니 위로는 古體에 의거함이 있고 아래로는 新文을 고침이 있어 장구할 수 있는 기초를 보장할 것이므로 必로 順수함으로 돌아가는 뜻을 나타낸다.”라고 한 글에 의하면 武后가 勅令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葉昌熾씨가 당시 신하들이 章奏 및 臣하의 書契에 모두 그 新字를 사용

29) 王三慶 앞글 p.439, 梅應運 「敦煌石室經卷題記之研究」, 『新亞書院學術年刊』, 第8冊, 1966年 9月.



華嚴經(卷第一~十)

則天武后字	一 般 字	武 后 字 使用比率
岡 ⇒ 24	月 ⇒ 3	88%
㊦ ⇒ 37	日 ⇒ 0	100%
○ ⇒ 1	星 ⇒ 0	100%
缶 ⇒ 7	正 ⇒ 0	100%
天 ⇒ 26	天 ⇒ 131	16%
地 ⇒ 57	地 ⇒ 11	83%
證 ⇒ 5	證 ⇒ 0	100%
國 ⇒ 101	國 ⇒ 1	99%
人 ⇒ 12	人 ⇒ 2	85%

華嚴經(卷第四十四~五十)

則天武后字	一 般 字	武 后 字 使用比率
初 ⇒ 1	初 ⇒ 0	100%
年 ⇒ 4	年 ⇒ 0	100%
月 ⇒ 31	月 ⇒ 0	100%
日 ⇒ 30	日 ⇒ 1	97%
星 ⇒ 1	星 ⇒ 0	100%
正 ⇒ 10	正 ⇒ 0	100%
天 ⇒ 47	天 ⇒ 46	50%
地 ⇒ 4	地 ⇒ 39	9%
授 ⇒ 7	授 ⇒ 0	100%
證 ⇒ 11	證 ⇒ 0	100%
聖 ⇒ 2	聖 ⇒ 0	100%
國 ⇒ 61	國 ⇒ 14	81%
人 ⇒ 33	人 ⇒ 124	21%

하였다. “...내가 본 則天武后의 비석이 수백 통 이상이고 궁벽한 시골, 僧侶와 道士, 工匠에 이르기까지 삼가 만들어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였으나 비석의 문자가 이미 정립되어 반드시 세상에 公傳한 것임을 밝히지 못하였고 私券은 私家에 간직하여 사용했는지 여부는 전혀 개인의 마음과 습관에 있었던 것이다.

사용 시기에 대해서 707년에 쓴 佛說示所犯者瑜伽法鏡經이나 708년에 쓴 大般涅槃經에 新字가 없다고 당 중종 神龍元年(705) 뒤로 新字는 곧 구름처럼 사라지고 연기처럼 없어져서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고, 계속 사용하다가 唐 文宗 開成 2년(837)에 詔를 내려 신자를 폐지하고 本字를 다시 사용하도록 하였다<sup>30)</sup>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唐代의 문헌에 나타난 制字는 則天武后때의 특이한 현상으로 則天武后 이후 唐末(907)까지 唐나라 사람들은 더 이상 制字를 쓰지 않았다는데 당나라 寫本과 刻本이 이를 증명한다고 한다. 則天武后 때 官府文書와 官員의 文書에는 일반적으로 모두 則天武后字를 쓰는데, 僧侶를 포함한 民間에서는 항상 則天武后字 정상적인 글자를 혼용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의 大英博物館 소장인 證聖元年(695)의 佛說寶雨經<s2278>과 長安3年(703)의 金光明經<s1552> 등은 모두 則天武后字와 정상적인 글씨를 혼용한 것으로 당나라의 불교문헌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이라 하였다.<sup>31)</sup> 이렇게 則天武后字는 일정한 시기 동안만 사용했던 특수문자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高麗大藏經에 수록된 몇몇 경전에 則天武后 新字가 보인다고 하여 고려시대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리하여 則天武后時代에 한역한 經典을 중심으로 고려 대장경에 보이는 則天武后字를 조사해 본 결과 7개의 경전에서 다음과 같은 則天武后字가 섞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 根本薩婆多部律攝(14권, 700년, 義淨譯)

初;44, 授;158, 證;28, 聖;25, 年;1, 月;85, 正;74, 天;7, 地;62 君;7, 臣;7, 國;16, 人;862  
(13종 1370자)

- 佛說寶雨經(10권, 693년, 達摩流支譯)

初;7, 地;3. (2종 10자).

- 大周刊定衆經目錄(15권, 695년, 明佺 等譯)

初;1, 正;14, 地;2, 授;3, 證;5. (5종 25자)

- 新集藏經音義隨函錄(30권, 940년, 可洪撰)

初;7, 年;3, 月;3, 日;2, 正;9, 天;8, 地;4, 授;2, 證;2, 聖;1, 國;2, 人;3. (13종 49자)

- 一切經音義(100권, 807년, 慧琳撰)

30) 王欽若 編纂, 『冊府元龜』, 大化書局, 民國 73年, 景印排字本, 卷 160.

31) 潘吉星, 「중국 중세기 조지 및 무구정경의 간행 문제」, 연세대학교학연구원, 세계인쇄문화의 기원에 관한 국제 학술심포지엄, 1999.

地;1, 人;1 (2종 2자)

- 道宣律師感通錄(單卷, 664년, 道宣撰)

臣;2 (1종 2자)

-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688년, 慧立本, 釋彥棕 箋)

照;1 (1종 1자)

이상과 같이 根本薩婆多部律攝은 13종 1370자, 佛說寶雨經은 2종 10자, 大周刊定衆經目錄은 5종 25자, 一切經音義는 2종 2자, 道宣律師感通錄은 1종 2자,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은 1종 1자의 則天武后字가 사용되었다.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에서 사용된 한 개의 則天武后字는 권6 제20장에 ‘墨’賜使翻譯女奘이라 되어 있는 ‘照’字이다. 則天武后字는 신라에서까지 避諱하였기 때문에 새로 만든 글자는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武后의 이름자이다.

7종의 경전 가운데 根本薩婆多部律攝을 제외하면 則天武后字를 사용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몇 자가 교정에서 누락된 경우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물론 7종의 경전이 동일한 조건이 아닐 것이다. 우선 則天武后 때 한역된 경전과 그 이전이나 이후에 성립된 경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각 경우마다 則天武后字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다를 것이다. 則天武后때 한역된 佛說寶雨經, 根本薩婆多部律攝, 大周刊定衆經目錄 등의 경전은 한역 당시 측천무후자가 사용된 底本을 版下本(板刻用 寫本) 작성과정에서 고쳐 쓰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다. 則天武后 때 한역된 경전이라 하더라도 사용되고 있는 則天武后字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은 중간에 바로잡고 누락된 예로 생각된다. 그러나 根本薩婆多部律攝은 則天武后字 사용비율이 60%를 넘어 則天武后 때 필사한 敦煌寫經에 보이는 則天武后字의 사용비율보다도 훨씬 높다. 이 경전은 則天武后字가 한역 당시 사용된 유일한 예에 속할 것이다. 이 경전이 우연인지 아니면 則天武后 때 한역된 대표적인 경전으로 특별히 보호받은 경전인지 기록은 없으나, 則天武后 당시부터 오랜 세월 동안 則天武后字가 고쳐지지 않고 전래된 유일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道宣律師感通錄, 一切經音義, 新集藏經音義隨函錄,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은 한역이나 편찬 당시의 것이 전래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傳寫할 때 옛날 것을 좋아하는 풍조였거나 아니면 則天武后字를 異體字로 간주해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則天武后字를 사용하였던 底本을 版下本 作成過程에서 그대로 수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則天武后字가 나타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則天武后字가 고려 때까지 사용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則天武后字가 則天武后 당시에 무조건 모두를 고쳐 쓴 것도 아니며, 則天武后 직후에 쓴 필사본에 이 글자가 없다고 則天武后 집권 이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것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807년에 慧琳이 撰한 一切經音義 권 54에 安世高가 漢譯한 佛說摩鄢女經에 女人과 委地的 ‘人’과 ‘地’字가 則天武后字로 되어 있고 ‘人’字 아래에는 人의 古字라고 되어 있고 ‘地’字 아래에는 地의 古字이고 則天后所制字라고 註記되어 있다. 그리고 ‘正’字 아래에도 天后所制字라고 註記되어 있으나 則天武后字가 아니고 본래의 글자이다. 이를 보면 佛說摩鄢女經과 같이 則天武后 당시에 한역된 경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則天武后 후대에도 古字나 異體字로 사용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대장경의 佛說摩鄢女經에는 모두 본래의 글자로 바뀌어져 있었다.<sup>32)</sup>

여기서 則天武后字는 武后의 治世에만 쓰이고 그가 죽은 뒤에 폐지되어 쓰이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칙이고 그 뒤에도 취미와 호기심에 따라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용 빈도에 따라 則天武后字를 사용한 것인지 교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잘 살펴 보아야 한다.

敦煌寫經을 조사한 王三慶은 “당시에도 新體字를 모두 쓰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것은 지방에는 잘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고, 인민이 新體字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 인민의 항거하는 마음, 위정자가 힘쓰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다. 글자에 따라서 사용한 비율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다. 天, 聖, 君 등은 사용비율이 낮다. 그리고 ‘瞿’자는 거의 없다. 敦煌寫經에 ‘照’자가 33번이나 사용한 실례가 있으나 新字는 하나도 없으니, 측천무후가 바꾼 ‘瞿’자는 오직 武后의 이름에 한정했을 뿐이다.” 라고 했다.<sup>33)</sup>

그리고 敦煌寫經에 妙法蓮華經 권4 등 10種의 寫經은 則天武后 때인 691년에서 701년 사이에 필사했음을 알려 주는 寫成記가 있어 그 당시의 寫經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0개의 사경의 寫成記에는 모두 則天武后字가 등장하는 데 비해 본문에는 藥師經과 佛說寶雨經 등 2개 경전에 등장할 뿐이다. 그것도 藥師經은 695년에 筆寫한 經인데 ‘正’字 한 개의 字만 등장하고 693년에 菩提流支가 번역하고 695년에 筆寫한 佛說寶雨經에는 正, 天, 地, 臣 등 4字의 則天武后字가 출현할 뿐이다. 敦煌寫經 중에 則天武后字가 가장 많이 사용된 글자는 君, 聖, 天, 人, 證, 地 등의 字이다. 그리고 ‘國’字는 則天武后字가 筆劃이 간편하여 대중의 환영을 받아 즐겨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고찰해 본 결과 신라사경은 돈황사경 보다는 뛰어난 측천무후자의 보고임을 알 수 있다.

32) 慧琳撰 一切經音義, 권 54, 高麗大藏經 影印本 제43권, 東國大學校 譯經院, 1976.

33) 王三慶, 앞글, p.443

이 『대방광불화엄경』은 신라시대 경덕왕 14년(755)에 백지에 먹으로 쓴 사경으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다. 뿐만 아니라 翻譯했던 당시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현존 最古의 華嚴經이다. 이 사경은 唐의 實叉難陀가 699년에 漢譯한 主本 화엄경 권1~10과 권44~50이다.

이 寫經은 周本 □□華嚴經□□ 80卷을 한 사람이 10권씩 나누어 筆寫하여 여덟 개의 두루마리로 제본한 것으로 그 가운데 첫 번째와 다섯 번째 두루마리가 전래된 것이다.

여기에는 사경제작에 따른 儀式節次와 製作方法이 기록되어 있고, 사경에 참여한 筆寫者, 經心匠, 佛·菩薩을 그린 畫師, 經의 題目을 쓴 經題筆寫 등 寫經에 관계한 19명에 대한 居住地, 人名, 官名 등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고문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 사경에는 初, 年, 月, 日, 星, 正, 天, 地, 授, 證, 聖, 國, 人 등 모두 13종 512字의 則天武后字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國’字가 177字가 나오는데 162개가 측천문자이고, 15개가 일반문자로 되어 있다. 이어서 天, 地, 日, 月 등의 순서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正’(17개)과 ‘證’(16개)은 100%이고, ‘日’은 67개 가운데 66개가 측천문자로 되었다. 이러한 예는 어떤 敦煌寫經보다도 則天武后字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이다. 日本의 正倉院에 있는 神護 景雲 2년(768)의 華嚴經 寫經에는 則天武后字가 이미 자취를 감추고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비하면 한역 당시의 상태를 保持하고 있는 유일하고 현존 세계 最古의 화엄경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경은 우리나라 最古의 筆寫本이고 뛰어난 신라 종이의 질을 보여주는 最古와 最高의 종이며, 본문 글씨는 뛰어난 서예작품이며, 則天武后字 연구와 신라시대 수준 높은 불교문화의 寶庫이다.

## The Study on 'characters made by Empress Wu Zetian' through The Avatamsaka-Sutra in ink on the white paper of the Shilla Period

Park, Sang-Kuk

The Avatamsaka Sutra copied in ink on the white paper of Shilla Period is the oldest manuscript in Korea. This Avatamsaka Sutra is volume 1-10 and 44-50 of the 80 volume's transcription.

According to the postscript, written with 528 letters at the end of the volume 10 and 50, this sutra is made during A.D. 754-755, for six months by the order Master Yon-gi(緣起法師) who founded Hwaumsa Temple(華嚴寺.) It explains the procedure of the ritual and production method of the sutra-copying, and also shows the 19 participants with their name, address, official title, and etc.

When the sutra was founded, volume 1-10 were so congealed that we could not open the volumes. And volume 44-50 was prohibited to take photograph for preservation. According to the recent examination, it proved that this sutra is the treasure for the study of the characters made by Empress Wu Zetian(則天武后.)

The characters made by Empress Wu Zetian(A.D. 625-705) are new shape of Chinese characters which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characters. After the demise of the Queen, the characters were not used any more officially, but privately some people used the characters for personal tastes and interest. The characters in the sutra includes 512 characters of 13 kinds of Empress Wu Zetians'. Compared to the Tun-huang version of the sutra, this is far better treasure for the study of Empress Wu Zetians' characters in terms of the number of the character and the their use of frequency. The Avatamsaka Sutra of Shoso-in(正倉院) in Japan copied in A.D. 768 does not use the Empress Wu Zetians' characters. In this respect, this Shilla Avatamsaka-Sutra is a unique one preserves the original forms of Chinese translation at that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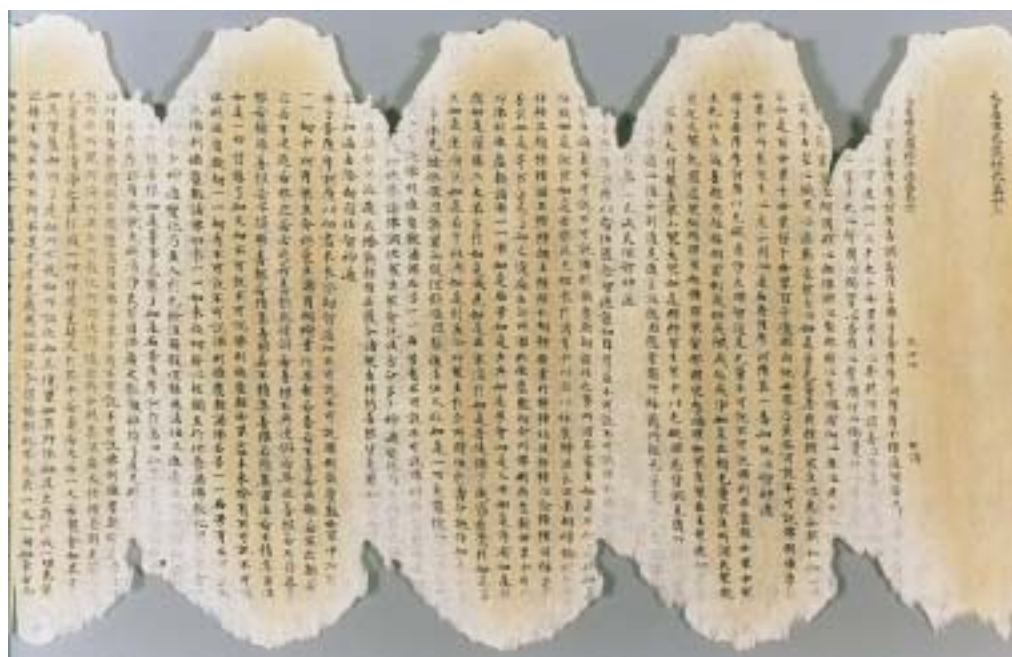
keyword ; The Avatamsaka Sutra, Master Yon-gi(緣起法師), Empress Wu Zetian(則天武后.), Empress Wu Zetians' characters. Hwaumsa Temple(華嚴寺)



변 상 도



권1 시작부분



권44 시작부분



大舍佛華嚴卷第

天寶十三載甲午八月一日卯乙未歲二月十四日一部同了改內之改內  
 願百帝龍音珠起法師為內賜第一是勝又願為之內你第二法界  
 一切眾生皆成佛歎為賜以改賜華經之改內法者皆報中奇  
 水觀不生長命內你然機中看情及脫那脫皮律那狀作  
 仙正那煙寫筆師那煙心通那佛善產保筆師孟使人  
 那善產成便令你那會你古請人等若人小便為表若  
 外而我並會樂我為者香水用尔沐浴令只但住之靈  
 中道在之經寫時中無淨淨馬內新淨衣柳木衣辭衣  
 冠天冠等莊嚴令只者二青衣童子演門針林你之香  
 衣童子者四伎樂人等並伎樂為你又一人香水行進  
 中歌你又一人花林行進中歌你又一法師香爐林引  
 你又一法師先唱引你諸筆師等香香花林尔右  
 念行進為作雲中至者三歸依尔三及頂礼為內佛菩薩  
 產花嚴經等供養為內以復中坐中界經寫在知經心  
 作你佛善產律作時中青衣童子伎樂人等除余得淨  
 法者上同之經心內中一收會利尔入內如我今暫傾  
 畫未未不成經典不爛壞假使三灾破大千以  
 殊与空不發破者有眾生於此經見佛聞經敬會到  
 發善健心不違轉請音贊因連改佛成讚起新罪因  
 京師師師師師作人仇叱球等無黃球加赤麻經筆師  
 我球伊州阿千奈麻異姓大會令毛大會或七卦全  
 寺赤沙球而尔泉文異沙球即曉卦舍馬沙大里  
 邱陽姓奈麻仁平幹舍屎馬幹舍仁即卦舍經心  
 近大京能吉奈麻弓古奈麻佛善薩像筆師同京  
 或奈卦奈麻丁得奈麻先得會知立馬會經題  
 筆師同京同智鉢舍六頭品人古得何准

권 10  
 마지막  
 부분의  
 跋文